

韓國의 圖書館學教育

—1970年度の 回顧와 反省—

金 世 翹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1. 머릿말

1970년에 국한하여 우리 나라의 도서관학계를 회고하고 반성할점이 특별히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한해동안에 우리 나라 도서관학 교육계에 예년과 다른 특기할만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1970년을 보내는 이 순간에 10여년의 한국의 도서관학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검토할 점은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1950년대에 이나라에 도서관학의 근대적 개념과 방법론이 도입된 후 여러가지 우여곡절과 회의와 방황속에서 지나면서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무엇인가 이룩해낸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던지간에 세월은 무의미하게 흐르지는 않는다. 교육은 백년대제라고 한다. 오늘의 교육이 내일 당장에 효과를 내기 기대해서는 않된다. 오늘에 쓰린 씨가 10년후 50년 후에 자라서 무성한 가지와, 잎을 그리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난 10년동안 그 꽃을 기르는 거름이 되고져 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그 10년이란 세월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언제나 회의를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과 방법이 과연 도서관학의 정도를 견고 있는 것인가, 규범적인 요구에 응하고 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화된 지식과 생각에 사로잡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가졌던 과거적인 한정된 경험적 기술과 체험적 방법의 범위에서 한거름도 벗어나지 못한 개고리가 아니었던가, 벌써 여러해 전에 누구에게서 배운 상상한 관념의 세계에 집착되어서 뚜렷한 학문적 입장과 철학을 가지지 못한채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도서관학을 과학적 입장과 체계적 인식에서 바라보지 않고 단편인적 기술의 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도서관 실무가 바로 도서관학이라고 속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것처럼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뚜렷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시간의 축적위에 역사가 이루어 지듯이 한국의 도서관학도 10년이상의 토대는 이제 섰으니 과거

를 반성하면서 내일의 비전을 찾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이어야 할 것이다.

2. 교과과정에 대한 것

우리 나라의 4개의 대학학부과정에 도서관학과가 있는데 그 커리큘럼의 편성이나 교육방법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통털어서 언급해도 별지장이 없을 것 같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4년과정을 마치는 동안 대체로 교양과목 80학점, 전공과목 80학점 정도 이수하는 것이 통례인듯 하다. 그러나 대학 4년동안 이수하는 커리큘럼이 미국식 도서관학교의 그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학원과정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대학학부 졸업자가 1년 내지 1년반이면 도서관학 석사가 되고 사서의 유자격자가 된다. 학제는 한국식인데 커리큘럼의 내용은 거의 미국과 비슷하다면 거기에는 모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이나 또 어떤 인사들은 같은 내용의 강의가 되풀이 되는 것이 많다는 비난도 이런 점에서 보면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다. 남은 1년 내지 1년반 하는 것을 우리는 거의 비슷한 것을 4년씩이나 하니 물론 기본자격이야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없을 수 없다. 대학원을 가진 도서관학과에서는 또 2년 더 이수하고 도서관학석사가 되는데 만약 그가 미국에 갈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석사가 그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도서관학교에 입학하여 또 1년반정도 공부하고 미국의 석사를 받게 되니 그는 7년반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한 셈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지만 있다해도 그는 7년반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기술을 가진 사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자(大學者)가 되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되풀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미국의 도서관학교 수준이 어디 한국의 그것과 같은가 할지 모른다.

미국에는 우리 나라에는 없는 몇몇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도서관학자도 있고 또 시설도 다소 좋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도서관학교 졸업생이 우리나라의 졸업생 보다 모두 월등하게 우수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도서관에서 몇해 실무에 종사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과정에서 4년 도서관학을 이수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학계상 어쩔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제도 자체는 그대로 두더라도 커리큘럼의 편성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일학년 때에는 전공을 전연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2학년까지 연장시켰으면 좋을 듯하다. 즉 2학년까지는 도서관학에 대한 전공은 하나도 하지 말고 교양과목만 하자는 의견이다. 콜롬비아대학 도서관학교의 질적향상을 위한 의견서에서 몇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중에 학생들의 기본교육수준이 높여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말은 사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교양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4년간의 대학교육이 기본 자격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학계상 학부 2년이라도 충분한 기초교양교육이 요구된다. 이것은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교양과목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은 충실한 교양이 요구된다.

영국의 도서관학교에서 세계문화사 영국역사 특히 영문학사가 가장 중요시되는 이유가 이런데에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만일 그렇게 함으로서 학생들이 모처럼 도서관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전공은 안하고 2년동안 교양과목만 하면 실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나 그것은 교양과목의 내용과 질에 관계되는 문제다. 그리고 3,4학년 때에는 집중적으로 전공과목을 철저히 이수케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일일이 전공과목 자체에 대한 논평은 여기서 삼가하겠지만 교양과목과정에서 이수하는 것이 좋은 과목이 3,4학년에 들어 있는 것이 있다. 「윌리엄 와너 비숀」같은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업경영자 즉 사회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지휘하고 또한 학계 및 창조적 연구조사에 이해를 가진 열성있는 사람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 실무에서 직접봉사 즉 대출이나 참고실, 잡지실에 근무하는 사서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용자를 상대할때 그가 얼마나 넓고 많은 교양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대학도서관이나 연구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실무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서의 기본교양이란 개념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지에 대한 지식이다. 서지에 관한 지식은 기술이라기 보다는 도서관적인 교양이다.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

는 분류나 목록이 아니라 바로 서지적인 교양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기계적인 일은 경험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도서관학 교육에 있어서 서지에 대한 과목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서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학교육이 또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정보지식의 범세계성을 생각할 때 어학에 대한 훈련은 교양과목에서 더 중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3. 연구활동

지난 몇해동안의 정치작업을 토대로 하여 도서관학 과에서 강의하는 몇몇 교수들의 정력적인 연구활동이 눈에 띄게 된 것은 참으로 경하할 일이다. 이런 사실은 사회적으로 도서관학의 뚜렷한 이미지를 심는데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서관학의 정립을 위하여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단행본으로 또한 각 대학의 논문집속에 자주 보이는 도서관학 논문들을 아직 역사가 짧은데 비하면 장한 일들이다. 다만 그것이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말고 도서관학 전분야에 그와 같은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어떤 학문분야이건 저서와 논문의 질과 수는 그 분야의 학문적 수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나라 도서관학계의 기념비적인 사실은 한국도서관학회의 발족이다. 만시지탄이 있기는 하나 우리가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학회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성장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해동안 지금까지 구체적인 활동은 없었지만 여러가지 뜻있는 일이 구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제1회 학술발표회가 지난 11월 7일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서 있었다. 여기서는 지난 1년동안 하버드 엔첸에서 연구하고 막 돌아온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배린 선생의 「미국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한국고서의 기술목록 문제」와 연세대학 도서관학과 이재철 교수의 「한국도서관을 위한 저자기호법의 연구」등의 두 연구 논문이 발표되어 클 성과를 견우었다.

4. 도서관학문헌자료센터의 설치

우리 나라의 도서관의 발전은 도서관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학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도서관학문헌자료센터의 설치가 요망되며 또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현재 각 도서관이나 도서관학과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자료를 많이 모으고 실지로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망라적이 못되고 예산상의 애로 및 수집의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행본은 물론이지만 세계각국의 도서관학 전문잡지 레터저널 판푸렛트 할것 없이 망라

적으로 수집되는 센터가 있었으면 도서관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동경대학부속도서관에는 미국 록펠라재단의 재정원조로 ALA가 선정한 도서관관계의 도서 및 판매편트를 대량 수집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도서관학 연구실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의 각 대학 도서관학교에는 저마다 실험도서관이 있어서 상당수의 도서관학 자료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그런 것은 가지지 못할지라도 비교적 외국도서관계와 교환사무를 많이 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혹은 도서관협회에서의 도적으로 그런 기구가 마련되기를 갈망한다. 도서관협회의 하나의 새로운 사업으로 취급되기를 바란다. 만일 이런 기구가 생긴다면 한국의 도서관학의 발전과 정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교직에 있는 사람이나 도서관학과 학생들을 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서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색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 있다.

5. 도큐멘테이션에 대하여

도서관학 교육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이슈는 도큐멘테이션이다. 즉 점차로 정보세계의 표면에 노출되고 있는 도큐멘테이션을 도서관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나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 수삼년전부터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람이 언급한 바가 있지만 우리나라 도서관학의 토대를 구축하는 이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소신을 피력하여 하나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도서관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리큘럼에 있어서도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점에 대하여 뚜렷한 해답이 나와야 할 것이다. 도큐멘테이션에 대하여 대체로 세가지 입장이 도서관학계에 있는 것 같다. 도큐멘테이션을 도서관학의 일부로 보는 전통주의자, 도큐멘테이션과 도서관이 서로 합쳐

져야 한다는 변형법적 입장에서는 협력주의자 그리고 도서관학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독립주의자 들이다.

이런 세가지 상반된 견해는 결국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그만큼 도큐멘테이션의 개념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도서관학 교육에서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결정의 의무가 남아 있다. 나는 도서관 경영이 기계화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키이판차나 프로그래머가 라이부라리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술자이며 라이부라리언과는 차원이 다르다. 도서관학에서 컴퓨터의 프로그래머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그런 방향으로 카리큘럼을 이끌고 가는 입장에는 반대한다. 에브스트렙터가 라이부라리언이 아니다. 컴퓨터 오페레이터가 라이부라리언이 될 수는 없다. 도서관에서 그런 정보검색이 필요하다면 그런 기술자를 월급을 주고 채용하면 된다. 다만 우리는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일반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도서관 경영에 반영 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테이타뱅크가 생기는 판국에 도서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세울 이유는 없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앞투데이트한 것만이 유일한 지식은 아니다. 도서관은 컴퓨터처럼 빠르지는 못할지라도 긴 역사성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수가 없다. 우리나라도서관학과에서는 대체로 한과목 3학점의 도큐멘테이션의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나는 그것으로 현시점에서는 족하다고 생각한다. 점차로 도서관이 다른 모든 분야와 같이 기계화의 과정을 걸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지만 도서관학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가 분명히 말해두어야 할 일은 도서관학은 기술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역사적 문화성에 근거를 둔 의식의 소유자를 길러내야 한다는 원칙을 어느 시대 어떤 경우에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도서관학은 도큐멘테이션 때문에 발전할지라도 결코 밀리거나 소멸되지는 않는다. 도서관은 장장 8,000년의 역사 위에서 있다.

인 사 소 식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임원개선(11월5일)

- | | | | |
|----|--------------|------------|------------|
| 회장 | 이영택(서울의대 교수) | 윤영대(카톨릭의대) | |
| 감사 | 李正祐(이화여대 의대) | 이승하(연세의대) | |
| 이사 | 강병식(서울의대) | 이정호(한양대학교) | |
| | 고성수(경북의대) | 사무장 | 윤영대(가톨릭의대) |
| | 김옥규(원주 기독병원) | 총무 | 유광남(가톨릭의대) |